

가계 빛 다시 '들썩'... 지난달 3조원 증가

새정부 출범후 부동산 호황...5대은행 대출 4월보다 2배 ↑

정부 절감 대책 곧 발표... LTV·DTI 규제 강화 여부 결정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이후 서민들의 빛 증가폭이 확대 되면서 가계부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해 다음달 말 종료되는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여부를 조만간 평가할 예정이다.

5월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첫 달인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02조7911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조994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인 1조461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은 지난 1월과 2월 감소했다가 3월 들어 늘어난 후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던 이유는 집단대출 때문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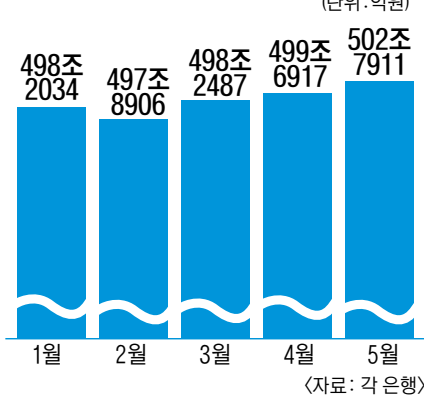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3~4월이 분양 성수기인데 5월초 대신으로 한두달 밀리면서 지난달 분양물량이 크게 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고 휴일도 많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추이



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대책의 첫 시험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LTV·DTI 행정지도 연장 여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규제

비율을 유지하거나 바꿀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LTV·DTI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사항으로 20일간의 의견청취 기간과 행정지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이달 중순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LTV·DTI 규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낳았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만큼 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 관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이며 결정하겠다"며 "규제 완화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8.62 (-3.10)
-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1)
- ↑ 코스닥 662.32 (+3.54)
- ↓ 환율 (USD) 1118.30원 (-3.50)

"IoT 가전으로 전기료 절약하세요"

한전-삼성전자 '에너지 IoT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와 삼성전자는 '에너지 피크' 관리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 IoT(사물인터넷) 사업'에 참여할 희망고객 100가구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순간 최대 전력량을 기록하는 피크 시간대에 자동으로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능형 전력량계(AMI)가 설치된 서울 성동구 금호대우·관악산휴먼시아·

목동 한신청구 등 12개 아파트단지와의 인전의 타워플러스 상가가 대상이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IoT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 피크 관리 기능이 탑재된 삼성 무풍에어컨과 T9000 냉장고를 구매해야 한다. 시범서비스 참여 고객은 에어컨, 냉장고 구매 때 할인을 받고, 전기요금 절감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아파트단지나 상가 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LH, 효천1지구 생활용지 16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기)는 광주 효천1지구 근린생활 시설용지 등 총 16필지 1만 6000㎡를 일괄방식으로 일반 실수요자에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효천1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풍부한 녹지대를 갖춰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효천2지구, 진월지구, 실버건강타운, 풍암유통단지, 송암공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다.

효천1지구 도로교통망은 동측에 국도 1호선(송암고가), 북측에 제2순환도로에 이어 공동주택 입주시기인 2019년 1월 남측에 신규 도로가 개설된다.

광주시청과 빛고을혁신도시가 반경 10km 내외에 위치해 있고 단지 내 초등학교와 인근에 송원교육재단(초·중·고·대), 광주대, 인성고 등이 있다.

세부적 공급 물량은 근린생활 시설용지 14필지(1만5000㎡), 주차장용지 1필지(595㎡) 및 단독주택용지 1필지(476㎡)다. LH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입찰신청을 받아 공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LH청약센터에서 매각공고를 확인하거나, LH 광주전남본부 토지판매부로부터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이주여성 한국 배우기' 호평

2017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2기 수료식



전통음식·경제교실 등

문화교실 2기 수료식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5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펼쳐진 문화교실 2기 수료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주남구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선정된 20여명의 2기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했다.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메이크업 수업, 어버이날 꽃바구니 만들기,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MBTI, 한국전통음식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문화수업을 진행했으며, 광주은행 직원이 직접 재테크강의 및 금융사기예방 교육을 펼치는 등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직장인 45% 연봉·처우 불만에 이직 결심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을 운영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이 이직 경향이 있는 직장인 1093명을 대상으로 이직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4.9%가 '연봉 및 처우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력 향상(자기 개발 등을 위해)'(11.4%), '기업 문화와 가치가 맞지 않아서'(10.8%),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 낮아

서'(9.5%), '현 직장보다 좋은 대우의 이직 제안으로'(8.7%), '퇴장, 동료 등과 불화로 인해'(8.1%) 등의 답변이 있었다.

첫 이직 시기는 '1년차'(20.8%)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2년차'(20.4%), '3년차'(16.1%), '1년 미만'(14.3%), '4년차'(7.9%), '5년차'(7.9%) 등 순이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문대통령에 바라는 경제정책은 규제완화

5일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 공개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제 의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내 주요 15대 경제연구원장은 '규제완화'(10표)와 '4차 산업혁명 투자 활성화'(10표)를 새 대통령 경제정책의 첫 번째 어젠다로 뽑았다.

경제연구원장들이 복수로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9표)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성공'(8표)이 뒤를 이었다. '국민 통합과 소통'(6표), '중소기업 육성'(6표), '시진핑 주석과 사드 조율'(5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연철뉴스

익산국토청 건설현장 매뉴얼 발간

시공·안전·품질관리 사례별 정리 호남권 보급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만중)이 건설공사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현장 점검 매뉴얼'을 발간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청 발주중사와 외부 발주, 인·허가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에 이어 '건설공사현장 점검 매뉴얼'을 제작, 지역 건설현장 등에 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업무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했으며 관계법령 등을 수록해 현장 건설기술자들이 누



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수검·점검자의 행동 요령과 수검자의 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 절차 등도 수록해 현장 점검의 공정성 유지와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